「靑銅器時代 中期의 設定과 問題」에 대한 토론문

이 홍 종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본 발표문의 저자인 김규정 선생은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송국리문화에 대한 일련의 연구성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이다. 또한 단순한 저술활동뿐만 아니라 발굴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송국리문화 관련 유적의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중기의 설정과 문제'라는 본 발표문을 준비하기에 매우 적절한 연구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중기의 설정과 그 연대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나열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특별한 논점을 찾기에 무리가 있다. 토론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과 궁금한 점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우선 본 발표문에는 북한지역 청동기시대 자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남한의 송국리문화단계는 북한지역의 미송리형토기~묵방리형토기 단계 중 일부와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북한지역에서 송국리형주거지나 외반구연토기 등 송국리문화의 표지적 유물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비파형동검이나 석기 양상의 비교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병행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본 발표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남한지역만의 중기 설정이 아닌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중기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발표자는 중기의 하한이 점토대토기의 상한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송국리형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점토대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서는 출토위치를 근거로 동시기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견해도 있지만, 안정된 동일층에서 송국리형토기와 공반되거나 주거지 바닥면에서 출토되는 예 등을 통하여 송국리문화 단계의 일부가 점토대토기 단계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발표자가 제시한 점토대토기문화의 탄소연대측정치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송국리를 중기로, 점토대를 후기로 설정하는 것은 문화적 흐름

상 어떤 근거에 의해 구분되는 것인가?

3. IV장에 언급한 송국리문화의 기원문제가 본 발표문의 목적인 청동기시대 중기의 설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토론자는 송국리문화의 외부 영향설을 줄곧 주장하여 왔지만, 외래의 문화요소이든 재지계의 점진적 발전이든 관계없이 송국리문화가 기존의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문화상을 보인다는 점은 물질자료를 통하여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중기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원문제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발표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송국리문화의 기원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이라는 이번 발표에서 굳이 이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다.